

투데이칼럼

북미 대화 신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외교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보겠다.”고 한 것이다. 취임 첫날에는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지칭해 파장이 일었다.

백악관과 행정부 주요 책임자들까지 충성파로 채워진 상황에서 우리 외교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중 나왔다.

북한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과시하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즉 ‘핵무장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친했습니다. 그는 저를 좋아했고 저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 지냈고, 제 생각에 그는 제가 돌아온 것을 기뻐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많은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 관광 개발 등에서 협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축하 무도회장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돌연 펄택 주

한미군과 깜짝 영상통화를 연결해 김 위원장의 안부를 물더니, “모두 안녕하십니까, 그곳은 어떨니까? 김정은은 어떻게 지내나요?”라고 했다. 그를 ‘터프한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잇따라 김 위원장에게 관심을 드러낸 것인데, 우선은 대화를 시작해보자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지칭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워졌다는 위싱턴의 현실론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NPT 체제에서 합법적인 핵보유국을 지칭하는 용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이다. 트럼

프 대통령이 언급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끌어내려는 고도의 협상술이란 해석이다. 이렇게 북핵 문제가 엄중해진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 소외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비용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부터 끊임없이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해 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

트럼프 2기는 대부분 충성파로 채워진 1기보다 즉흥적이고 예측불허의 정책이 속출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알렸다.

정복규
논설위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소식을 전한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이 주민들에게 관련 소식을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매체는 다만, 북한을 ‘핵무장국’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전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무기 전시회 기념 연설에서, 지난 시기 가졌던 북미 대화의 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지난해 말 개최한 집원회의에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대미 정책을 공개하진 않았다.

새해 처음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선 당초 대미, 대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었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불참했고 내부 안전만 토의한 채 끝났다.

지금으로선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북한은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언제쯤 사회주의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새 영도 조항을 신설한 개헌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사설

트럼프 이민자 추방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최근 초비상 사태를 맞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이민자 추방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극단적인 반(反) 이민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인 약 15만 명이 추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인들에게는 ‘재앙’과 같으면서 “현재 한인 사회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서류 미비 등으로 추방 대상인 이주민은 약 1천4백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한인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입양제도 사각지대에 몰려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입양인은 4만~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는 무국적입양인시

민권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올해 목표라는 여론이 많다.

실제로 많은 시민단체와 함께 수년 전부터 연방의회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민 로비를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철저히 미국 이익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 때에 비하면 힘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것이 엄청 많은 것이다.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무역·사회·문화 측면에서도 요구하고 금지하는 일이 빈번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 러시아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등 독재자들과도 거래할 것이다.

미국 주지사나 상·하원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나서서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다른 민족 이민자 단체들과 연대해 공동 대처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기원 커제 사태

최근 바둑계에선 ‘사석 규정’ 논란이 뜨겁다. 우리나라가 주최한 대회 결승전에서 중국의 커제 9단이 이 규정 때문에 반칙패 판정을 받아 결국 기권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이 주최하는 대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커제 9단은 대국을 멈추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한국기원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주최 대회에 적용한 ‘사석 규정’ 때문이다. 바둑에서 사석은 상대방으로부터 떠난 돌을 의미한다. 한국기원은 사석을 통의 뚜껑에 보관하지 않을 때 경고를 선언한 뒤 발절을 주고, 경고가 2회 누적되면 반칙패를 선언하기로 했다.

커제 9단은 이 규정 탓에 최근 열린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전 2국에서 반칙패를 당했다. 3국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결국 대국을 포기하고 기권패 처리됐다.

메이저 세계기전 결승전에서

반칙패가 선언된 게 처음이었던 만큼, 논란은 커졌다. 발절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나 커제 9단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국 바둑에서는 계가, 즉 대국이 끝난 뒤 집의 수를 셀 때 이 사석을 사용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중국 바둑 선수들은 사석을 초시계 옆 등 아무 데나 놓는 경우가 많다.

한국기원은 애초 이 규정을 중국 측에 명확하게 알렸다는 입장이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공식 사과했다. 규정이 개정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 중국 선수들의 적응 기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면서 세계대회에 걸맞은 통합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다음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최고기사 결정전’에 불참을 통보하며 경기 일정은 연기된 상황이다. 한국기원은 적극적인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단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고국 돌아온 미국 추방 베네수엘라 이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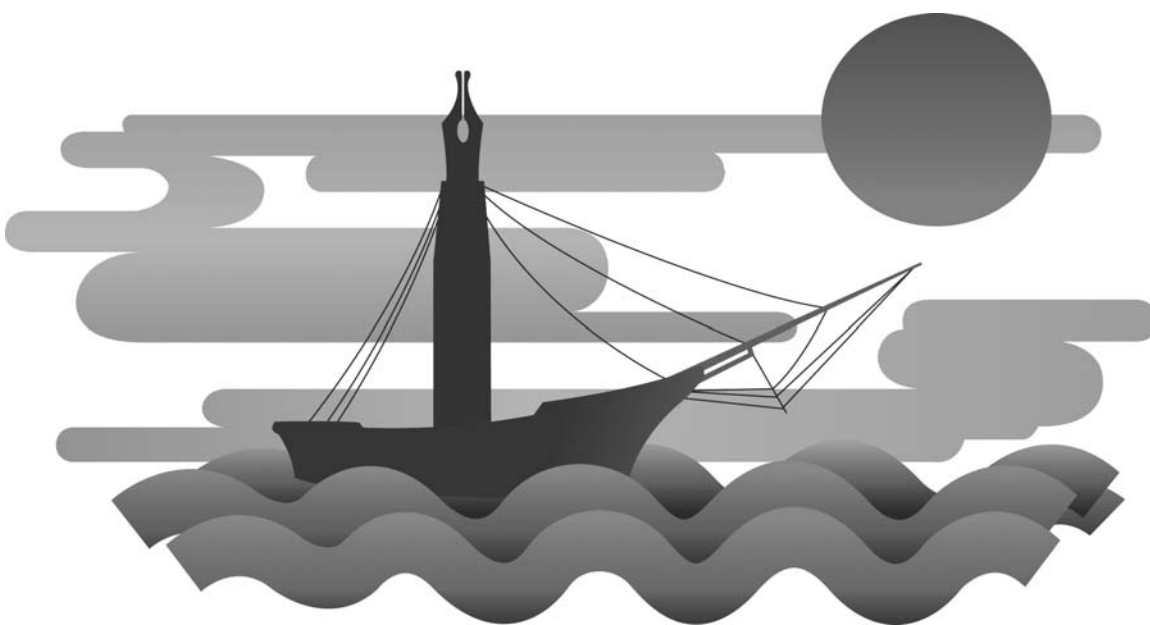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 마이케티의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리고 있다.

‘그 자연이...’ 출연진과 레드 카펫 선 홍상수 감독



홍상수(가운데) 감독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그 자연이 내게 뭐하고 하니’ 레드 카펫 행사에 참석해 출연진과 함께 포토 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강소이, 조윤희, 홍 감독, 권해호, 하성국, 임신 중인 김민희는 홍 감독과 베를린에 동행했으나, 공식 석상에는 서지 않았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